

'17년 學軍 의료 봉사활동을 마치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본과 2학년 이상찬

작년 본과 1학년 때 울릉도 학군 의료 봉사활동에 참가하지 않아, 이번 봉사활동이 첫 학군 의료 봉사활동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이론으로만 배우다가 직접 필드에 나가 봉사활동을 진행하니 이론과 현실과의 괴리를 체감할 수 있었으며 향후 어떤 과목을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나갈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보정법과 각 약물의 이름과 사용법에 대해 미리 숙지하였습니다. 다만 실제로 약병을 보고, 약물을 주사기로 뽑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인지 처음 주사기를 꺼냈을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실제 현장에서 처음에는 어리숙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실제 상황이 돌아가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조금이나마 그릴 수 있게 되어 향후에도 이런 기회가 마련된다면 그 때는 좀 더 당황하지 않고 숙달된 솜씨를 보이고 싶습니다.

덕적도에 도착한 첫 날은 김재영 원장님 밑에서 길고양이 TNR 수술팀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학부생 네 명 및 조교님 두 명, 원장님 한 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첫 날이라 우왕좌왕하는 상태에서 인력도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힘든 날이었습니다. 저는 주로 고양이를 포획틀에서 주사틀로 이동시키는 과정과 마취차트 작성 및 관리, 수술 후 케어에 투입되었습니다. 수술에서 마취의 중요성 및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날 때까지 마크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취차트 기록을 정확히 해야 ketamine과 같은 항정신성약물의 사용량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평균적인 약물 사용량과 해당 케이스의 사용량을 비교하여 마취에서 깨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의 차이를 유추해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이인형 교수님 밑에서 이동진료를 하였습니다. 오전에는 덕적도 지역 중 진리를 중심으로 하였고, 오후에는 덕적도 옆 소야도로 배를 타고 이동하여 개 DHPPL 백신 투여 및 개, 고양이 구충제 투여를 하였습니다. 저는 DHPPL 주사 제작에도 몇 번 참여했지만 주로 문진표 작성을 전담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마을 주민 분들과 만나며 견주 및 축주에게 대해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도 하루라는 짧은 시간이나마 배울 수 있던 기회였습니다. 백신 투여 중 중간에 약물이 새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경우 이는 주사를 피하에 정확히 꽂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늘을 꼭 끼워놓고, 주사를 한 번 당겨 풀어줘야 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 할 것 없이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을 할 때는 어색하고, 숙달된 솜씨를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루의 시작보다는 하루의 중간이, 하루의 중간보다는 하루의 끝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식으로 방학 때마다 시간내어 조금씩 부딪쳐나가며 실전을 통해 공부한다면, 향후 수의사 면허를 획득했을 때 제가 그리는 수의사의 모습에 조

금 더 빨리 가까워져있지는 않을까 생각하게끔 만들어준 활동이었습니다.

'17년 學軍 의료 봉사활동을 마치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본과 2학년 남치영

덕적도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섬이었다. 이번 봉사가 아니었다면 나와 인연이 없었을 수도 있다. 덕적도의 주민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인데 보건진료소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범위 밖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인천까지 나가야 한다. 사람도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섬에서 동물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섬인 덕적도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자면 수의사가 한명도 없는 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 동물병원장님, 학교동물병원 수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했던 이번 봉사는 그 어떠한 곳에서의 봉사보다 가치 있는 봉사였을 것이다.

봉사활동 기간만큼이나 준비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약품, 의료용품, 수술도구, 장비, 위생용품 등 많은 물품들을 준비해야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TNR에 대한 공부와 마취제, 백신, 구충제, 항생제 등 약물에 대한 공부가 가장 중요했다. 그래서 아직 강의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들 여러 가지를 동물병원 수의사 선생님들에게 강의를 듣고 공부하게 되었다. 마취약물의 종류와 마취단계 및 절차, 마취기록방법, 개·고양이 보정법, 주사법, 카테터삽입 등을 배우고 나니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수의사 선생님들에게 짐이 될 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다. 본과에 들어와서 3학기를 공부했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많이 흥미롭기도 했다.

6월 26일 월요일에 학교에서 모여 최종적으로 물품을 점검하고 약물 공부를 마무리 한 뒤에 학교 기린버스를 타고 인천으로 향했다.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의 콘도로 가서 짐을 풀고 저녁식사를 한 뒤 다음날 덕적도로 출발하기위해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인천항으로 이동했고 승선 후 1시간 정도 지나 드디어 우리는 덕적도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다.

해군 2함대에서의 점심식사 후 우리는 계획대로 오후부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3개조 중 1개조는 수술팀으로 덕적신재생에너지홍보관 2층에서 길고양이 TNR 중의 N(neutralization)과정 수술에 들어갔고 나머지 2개조는 이동진료조로 각각 작은 마을을 둘러서 반려강아지들에게 백신투여와 구충을 실시하였다. 내가 속해있던 이동진료조는 이인형교수님과 5명의 학부생으로 구성되어 교수님 지도하에 백신(DHPPL) 피하주사 및 구충제(Selamectin) 피부도포를 하였는데 피하주사의 경우 봉사 전 준비 기간에 실습해 보았을 때처럼 잘 되어 기분이 좋았고 자신감도 붙었다. 오후시간동안 우리 조는 두 마을에서 18마리의 개에게 백신 및 구충을 하였고 1마리의 고양이에게 구충을 하였다. 두 마을에 개가 많지 않아서 예상보다 많은 접종을 하지는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의 시작을 잘 해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오후 4시 부터는 수술실로 이동하여 모든 조가 수술실에서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은 교수님들과 원장님이 하였고 본과 3,4학년은 수

술 보조를, 본과 1,2학년들은 마취기록지 작성과 TPR, 술부 라이트 비추기 등 할 수 있는 일들을 했다. 마취된 고양이가 배를 보이며 누워있고 교수님이 수술도구를 들고 있는 수술실에서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실수가 없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하지만 아직은 모르는 용어나 물품, 도구가 있어서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수술실에서는 시간이 정말 빨리 갔다. 첫째날 수술팀에서는 총 14마리의 고양이를 중성화했고 모든 수술일정이 끝나면서 첫째날 봉사일정은 끝이 났다.

해군 2함대에서의 맛있는 아침식사와 함께 둘째날이 시작되었다. 첫째날 보다는 더 많은 보호자들이 개를 데리고 찾아왔다. 그래서 시작부터 설새 없이 백신을 주사하고 구충제를 도포했다. 그러던 중 한 할머니가 우리가 가는 방향과 반대방향에 사셔서 할머니 집으로 따라가 백신을 투여하게 되었다. 걷던 중 문득 궁금해져서 할머니께 덕적도에서 태어나서 쭉 사신건지 여쭙어 보았는데 할머니께서는 1·4후퇴 때 덕적도로 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곳에 쭉 살아오셨다고 했다. 그 외에도 할머니의 남편은 군인이셨고 덕적도에서 돌아가셨으며 할머니의 똥개는 못생겨서 정이 덜간다는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1·4후퇴와 6.25전쟁 이야기를 할 때에는 역사책과 대화하는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할머니의 개는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 보였다. 내가 다가가자 매우 신나 격하게 움직이며 안기고 핥고를 반복했다. 아직 경험이 적은 내가 혼자 갔던지라 보정을 하고 백신 피하주사를 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주사기를 들고 끄끙대는 나를 보고 할머니께서 도와주셨는데도 주사바늘이 꽂힌 채로 움직이는 개에게 백신을 모두 투여하지 못하고 주사기를 놓쳐버렸다. 하필 혼자 멀리 와서 여분의 백신이 없을 때 길게 이야기를 나눈 할머니의 개에게 백신주사를 실패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구충제까지 도포한 후에 할머니께서 음료수 한병과 사탕 3개를 챙겨주셨는데 죄송스러운 마음이 너무나 컸다. 점심식사 후에는 소야도로 이동하였다. 소야도는 덕적군도의 한 섬으로 덕적도에서 바로 앞에 보이는 매우 가까운 섬이다. 소야도에서도 설새 없이 열심히 주사와 이동을 반복하며 실적을 쌓아올렸다. 물론 우리조가 백신주사와 구충을 하고 있을 때 수술실 역시 바쁘게 움직였을 것이다. 셋째날 오전진료까지 포함하여 우리 봉사단은 25건의 수술과 184마리에 대한 백신과 구충을 하였다.

덕적도는 여러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 이다. 덕적군도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갈라파고스군도가 떠올랐다. 예전에 갈라파고스군도의 유튜브 영상을 본적이 있는데 수많은 물개와 펠리칸이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고 이구아나와 거북이 등 많은 동물들이 그 섬의 주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매우 인상 깊었었다. 덕적도는 그런 섬은 아니지만 지난 2박3일 동안 우리 봉사단은 덕적도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과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인간 뿐만 아니라 수 많은 동물들도 지구의 주인이다. 꿈같은 이야기 일수 있겠지만 다른 곳들도 갈라파고스 군도처럼 언젠가는 동물이 사람들과 잘 어울어져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봉사기간 동안에 동물이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게 될 반응의 효소 역할을 잘 해낸 것 같아 기쁘다. 나는 육군의 위탁교육생으로서 졸업 후 수의장교가 되었을 때에 해야할 일들을 더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도 되었다. 마지막으로 봉사 동안에 많은 도움을 주신 교수님, 동물병원장님, 학교동물병원 수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해군의료진 및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7년 學軍 의료 봉사활동을 마치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본과 2학년 김민기

수의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동일한 '수의사'라는 수식어를 갖게 됩니다. 수의사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 학교에서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하며, 학생들은 이를 따라가기 바쁩니다. 학기가 시작하고 나면 쏟아지는 시험에 치여 정신없는 하루를 매일 보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나를 정의할 수 있는 단어 중 하나인 '수의사'앞에 과연 어떤 수식어가 붙을지, 나는 어떤 수의사가 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수의사 앞에 붙을 수 있는 수식어를 완성해나가기 위한 과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동물들을 위하는 수의사', '개인적 소비보다 사회적 소비로 인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수의사'와 같은 수식어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과 동물들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간과 돈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개인적 소비**보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사회적 소비**가 진정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것을 굳게 믿습니다. 덕적도에 사는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아직 대한민국에서 외면 받는 길고양이들. 봉사활동에서 저의 역할을 비록 매우 사소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을 위해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이번 봉사활동에서 가장 뿌듯했습니다. 그들에게 더욱 헌신하고 베푸는 것이 결국에는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나의 행복을 위해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하며, 봉사활동 때 느꼈던 것들을 가슴에 묻어 평생 잊지 않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위해 귀한 시간 내주시어 참가해주시고, 사회로의 공헌을 통해 헌납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들과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